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정부안에 반영돼야”
우범기 정부부지사
기재부 찾아 건의

전북도가 지난 4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각 중앙부처는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로 부처별 예산편성안을 제출했고, 이날인 4일은 기재부의 1차 심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날은 우범기 정부부지사가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핵심 인사를 방문해 전북도 행정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우 부지사는 먼저, 소형 무인선 무인잠수정 등 소형 해양무인기동체 기술 검증에 특화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미래기술확보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소형해양무인시스템’은 고부가가치 기술로 관련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14%씩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검증 기술 부족으로 사업화 및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 내에는 실제 바다와 유사한 환경의 정온수역을 이루고 있으며, 해양무인시스템 성능평가



우범기 정부부지사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을 찾아 현안사업과 관련된 면담을 하고 있다.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장 진입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형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사업이 구축되면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국내 해양 ICT 업체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집적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세계 최대규모(3GW)의 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으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인근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조형물을 설치해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사업’에 국비 5억원 반영도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내부에는 VR, AR 체험관과 E-게임장 실내드론경기장 K-팝 홀로그램공연장 외부에는 레이저 및 미디어파사드 연출로 표현될 예정이다.

이들러 새만금에 구축된 1~2단계 모바일티 실증 인프라에 이어, 3단계 최종 실증으로 실증단계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티 실증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를 끝나는 8월말까지 정부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도의회, 내일부터 올 첫 정례회 개최

23일까지 도정·교육행정 질문
회계연도 결산 등 23건 심의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8일 제3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3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9일부터 2일간 9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 관련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도청과 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은 김대오(익산), 두세훈(완주), 김병지(전주), 김중식(군산), 홍성임(비례)의원이 1일차에, 최형삼(비례), 성경찬(고창), 진형석(비례), 이한기(진안) 의원이 2일차에 각종 현안에 대해 도지사과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할 예정이다.

송지용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북의 가계와 기업 상황이 심각한 만큼, 도민들에게 지역사회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도정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382회 정례회는 6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한다.

/유호상기자

특고 노동자 보호, 우수 법안 선정

민주 윤준병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외부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안의 독창성과 선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선안과정’과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4가지 항목의 정성평가를 통해 입법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회의원을 공칭하고 투명하게 평가·선정했다.

윤 의원의 수상 배경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재 위협으로부터 특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고용노동 및 기후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성실한 의정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보험으로부터 법적 보호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의 신청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이 파부로 느낄 수 있는 궁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오늘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드립니다”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지역주민들과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히 의정활동에 정진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나 실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 제외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지적 및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특고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의정활동 최우선의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 이정수 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5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후임엔 이정수(52·26)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한동훈(48·27)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비법제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들을 포함해 대검감사관 검사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11일이다.

고검장급 승진 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부터 26기까지 이뤄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만큼 법무연수원장 등 일선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주요 고검장 자리를 꿰찼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여환섭(53·24기) 광주지검장, 권순범(52·25기) 부산지검장, 조재연(58·25기) 대구지검장, 조종태(54·25기) 대검 기조부장, 김관정(57·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각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27~29기

에서 10명을 상대로 단행됐다. 27기에서 승진자는 주영환(51)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유일하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다. 반면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구본선(58·28기) 관주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각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났다. 이와 함께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윤대진(57·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역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직을 맡게 됐다.

국제검사협회장을 맡고 있는 황철규(57·1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차장감사가 됐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름이 오르며 좌천된 한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라며 “장관께서 총장 의견 중 많은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반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내 기초의회 소식



조상중 정읍시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이 최근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지방의회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조상중 의장은 시민의 주권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주체의 변화와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지방정치를 이룬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2017년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과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해 3회째 수상하는 화려한 이력을 남겼다. /정음=김대환 기자

완주군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축진 릴레이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어려움 극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완주 전문건설협회회 조동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문건설 완주군협회는 하도급과 관련해 완주군의 지역 업체가 인배 받을 수 있도록 균형에 하도급 전담부서 마련이 시급하다 밝히며, 관공공사 시수의계약 건의 경우 관내 업체가 크게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달라 요구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홍보를 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등의 애로사항을 제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문 대통령, '성추행 사망' 공군참모총장 사의 즉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 관련 공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뉴시스